

# 스웨덴의 2010년 경제 동향과 노동시장 현황

손혜경 (스웨덴 옅살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연구원)

## ■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해외 수요 둔화로 인해 2009년 경제성장률을 -4.4%로 마감하였다. 이는 스웨덴의 불경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또한 지난 1년간 스웨덴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로 내수도 서서히 증가해 앞으로 몇 년간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도우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임금생활자들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또한 낮은 은행 금리로 인해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 지출액이 줄어들어 2009년도 스웨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3% 증가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도 이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스웨덴 집권 중도우파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해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그래서 몇몇 분야에 대한 경기부양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스웨덴의 최근 경제 동향과 스웨덴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전망, 임금단체협약 현상 진행사항, 스웨덴 자동차 업계의 변동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 최근 스웨덴 경제 동향

2010년 초 스웨덴 정부가 발표한 스웨덴 경제 전망은 2009년 11월과 비교할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스웨덴 정부는 2009년 11월에 2010년도 국내총생산이 2.0%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2010년 1월 중순에 들어 개정된 수치에 의하면 2010년의 국내총생산은 3.0%, 2011년에는 3.6%, 2012년에는 3.2%가 될 것이라고 한다. 예상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가 2009년 봄과 가을 예산을 작성할 때 2008년과 2011년 사이의 금융위기로 인해 약 30만 명이 실업을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약 12만 명이 실업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스웨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스웨덴의 국립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기종합지수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스웨덴 경제는 2009년 10월 이후 각 분야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매업 분야의 기업주들은 현재 경기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업주들은 해외 수요의 증가세가 아직도 크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기종합지수는 2009년 10월과 2009년 11월 사이에 4.0포인트만큼 올라갔고 11월과 12월 사이에도 성장세는 지속되어 경기종합지수가 101.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표 1〉 스웨덴 경기종합지수 (2009년 10월 ~ 2010년 1월)

평균지수	최대지수	최저지수	2009년 10월	2009년 11월	2009년 12월	2010년 1월
100	116.9	71.9	94.9	98.9	101.6	103.4
전월 대비			-	+4.0	+2.7	+1.8

주: 평균지수, 최대지수, 최저지수는 2001년 12월 이후 수치.  
출처: Konjunkturinstitutet (2010).

1) Svenska Dagbladet, 2010-01-27, "Regeringen höjer tillväxtprognos"

2010년 1월의 경기종합지수는 103.4포인트로 이는 2008년 3월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인 셈이다.<sup>2)</sup>

제조업의 경기신뢰지수는 지난 해 12월에 비해 4포인트만큼 상승하였으며 이는 현재 경기가 평상시보다 약간 양호하다는 표시다. 건설업의 경기신뢰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에 비해 10포인트만큼 상승하였다. 소매업의 경기신뢰지수는 평상시보다 계속 높은 수치이며 지난 해 12월에 비해 추가로 8포인트가 상승하였다. 민간 서비스업의 경기신뢰지수는 3포인트만큼 상승하였는데 이는 민간 서비스업계의 상태가 평상시보다 약간 양호하다는 의미이다. 가계의 경기신뢰지수는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사이에 약 1포인트만큼 상승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며 가계의 경기발전 상황에 대한 판단이 평상시보다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도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sup>3)</sup> 하지만 연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유지하고 또한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2009년 12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25%로 계속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표 2〉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2008~2009)

변동일자	기준금리	변동률	변동일자	기준금리	변동률
2009. 12. 23	0.25	0.00	08. 12. 03	2.00	- 1.75
2009. 10. 28	0.25	0.00	08. 10. 22	3.75	- 0.50
2009. 09. 09	0.25	0.00	08. 10. 08	4.25	- 0.5
2009. 07. 08	0.25	- 0.25	08. 09. 03	4.75	+ 0.25
2009. 04. 22	0.50	- 0.50	08. 07. 02	4.50	+ 0.25
2009. 02. 10	1.00	- 1.00	08. 02. 12	4.25	+ 0.25

출처: Riksbanken(2010).

2) Konjunkturinstitutet, 2010-01-29, "Pressmeddelande, Konjunkturbarometern Januari 2010"

3) Riksbanken, 2009-12-16, "Pressmeddelande - Reporäntan lämnas oförändrad på 0.25procent"

이는 작년 7월 이후 4개월간 연속 동결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낮은 기준 금리를 경기상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2010년 가을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 이후 스웨덴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 금리도 정상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 ■ 스웨덴 노동시장 현황 및 전망

지난해 스웨덴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급격한 실업률 상승은 2009년 3/4분기에 8.8%를 기록하였다. 2009년의 고용인구는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 계속 하락하였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기업의 감원 예고 수치, 신규채용 계획, 국영직업알선소에 신고된 새로운 일자리 등등의 수치를 감안할 때 앞으로 노동시장은 2009년 전반기처럼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표 3〉 스웨덴의 실업률 (전체 노동가능 인구대비)

(단위:%)

2009	2010	2011
8.5	10.1	10.4

출처: Konjunkturinstitutet(2009).

현재 많은 기업들의 낮은 생산시설 가동률은 앞으로 생산량이 약간 증가할지라도 당분간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제조업체의 생산성은 2007년 가을 이후 계속 감소하였고 2009년을 거치면서 약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은 계속 대규모의 합리화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2010년에 들어서도 이들 기업의 인력감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의 고용 증가는 2011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교통시설 확대 및 보수에 치중을 둔 정부의 재정책대정책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고용인구는

4) Ibid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0년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고용인구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지만 2010년 말에 들어서면 이런 추세는 정지될 것이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고용인구의 감소는 약 19만 명에 달한다. 이런 대규모의 인원 감소는 민간 부문 특히 제조업에서 발생된다. 노동인구에 대한 수요 감소는 노동인구의 공급량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력의 경기상 약세는 현재 스웨덴의 노동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각종 정치, 경제적 조치, 예를 들어 병가휴가 기간의 축소 및 노동시장 진입촉려 정책 등은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기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2010년과 2011년 에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71.9%로 낮아지며 이 수치는 1990년대 초 스웨덴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기간과 비슷한 것이다.

〈표 4〉 스웨덴의 고용률(연령이 16세부터 64세 사이 인구 대비)

(단위:%)

2009	2010	2011
73.3	71.9	71.9

출처: Konjunkturinstitutet(2009).

현재 스웨덴 노동시장의 위기는 고용인구에 대해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상당수의 실업자가 노동시장을 장기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는 잠재적 고용인구, 즉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고용인구의 수가 급변 불경기로 인해 약 7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sup>5)</sup>

노동시장상 모든 연령 그룹대가 현재 불경기 중 높은 실업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취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룹은 교육기간이 짧은 청소년들과 신체장애자, 고령자 및 비유럽국가 출신 노동자들 순이다. 또한 이들 그룹의 실업 기간은 장기화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5) Konjunkturinstitutet, 2009-12-18, "Pressmeddelande, Kunjunkturläget December 2009"

이들 그룹이 높은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과 직업 경력자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sup>6)</sup>

## ■ 2010년 임금교섭 진행 중

금년 스웨덴 경제에서 난제 중의 하나는 임금협약을 어떻게 원만히 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임금협약 체결 후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가중될 것이며 또한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12월을 종결 예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중에 약 500여 개의 임금협약이 개정될 것인데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을 모두 포함하여 약 300만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스웨덴 전체 노동자의 7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금번 임금교섭 중 노조 측과 사용자 측 간에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은 임금인상률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측은 스웨덴 경기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해 금번 임금교섭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중앙 수준에서의 임금인상률을 제로(零)로 할 것을 주장한다.<sup>7)</sup>

특히 민간 제조업 사용자 측 교섭대표는 중앙 수준에서 임금인상을 결정할 여지가 존재하고 없다고 하며 만일 임금인상을 하게 된다면 지역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용자 측 교섭대표는 또한 일부 민간 제조업체들이 최근 최악의 시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 제조업체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민간 제조업 임금교섭에서 “제로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에 반해 노동조합 측은 생산성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제조업 소속 사무직노동자노조 교섭대표와 금속노조 교섭대표 모두 최근 경기 하락

6) AMS, 2010-02-10, "Arbetsmarknadsläget i januari 2010, Försämringen på arbetsmarknaden dämpas"

7) Svenskt Näringsliv, 2009-10-20, "Avtalsrörelsen 2010"

8) Ibid.

으로 인해 임금인상폭이 물론 예전보다 낮지만 스웨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두 노동조합 협상대표들은 현재의 불경기가 기업의 임금비용 증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경제의 전반적인 수요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미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이는 또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이런 의미에서 민간 부문 임금교섭 초기에 ‘적절한’ 임금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금년 가을 · 겨울에 진행될 다른 부문의 임금인상폭 결정을 쉽게 하리라는 견해이다. 이 두 노조는 그들의 임금인상 요구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현재 노조 소단위별로 임금교섭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는 앞으로 몇 달 내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측은 금번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 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 향상, 전직 능력개선 등도 다룰 예정이다.<sup>10)</sup>

스웨덴의 경우 과거에 민간 제조업의 임금교섭 결과가 항상 타 부문의 임금교섭 기준이 되어 왔던 점을 감안해 민간 제조업 소속 사무직노동자노조 대표는 금년에 체결되는 임금협약에서도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민간 제조업 사용자 측 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다.<sup>11)</sup> 사용자 측 교섭대표는 스웨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바람직한” 임금협약 내용을 두고 사용자대표와 노동자대표 사이에 커다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 ■ 스웨덴 자동차 업계 현황

스웨덴의 주요 수출산업 중 이번 불경기를 통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은 자동차산업이며 자동차 양사 모두 소유주가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포드사가 소유하고 있던

9) TCO 홈페이지, 2009-10-14, Pressmeddelanden, "Uttalande av alla TCO-förbund inför avtalsrörelsen 2010"

10) LO 홈페이지, 2009-10-16, "Avtalsrörelsen ska ge mer pengar i plånboken"

11) Riksbanken, 2010-02-01, "Företagsintervjuer: Långsam återhämtning"

볼보(Volvo)는 2008년 가을 이후 급격한 수출량 감소로 인원감축 및 공장폐쇄의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볼보는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2009년 초 22억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 대출을 받는데 성공해 위급한 상황은 넘기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포드는 경영상태가 불량한 해외 자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피할 수 없어 새로운 소유주를 찾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현재는 볼보의 소유주가 미국 포드 회사에서 중국의 승용차 생산업체인 Zhejiang Geely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볼보의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low quality” 자동차 생산업체가 스웨덴의 “high quality” 볼보 승용차를 소유하는데 반대하나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새로운 소유주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sup>12)</sup>

사브(Saab)의 경우는 2009년 내내 볼보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성공한 볼보와 달리 사브의 대출은 사브 자체적인 자금부족과 스웨덴 정부 측의 보증이 없어 계속 연기되어 경영상태는 계속 악화일로를 겪었다. 자동차 업계 위기 초기인 2009년 1월에 사브의 소유주인 GM은 사브공장 폐쇄를 발표한다. 2009년 2월 17일에 들어 GM은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브 구제안으로 2010년 1월을 시한으로 해 사브사를 판매할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GM사는 사브의 그동안 열악한 경영 실적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주를 찾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09년 8월에 들어 스웨덴의 소규모 스포츠카 생산업체인 Koenigsegg이 GM과 소유권 이전 협상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2009년 11월 24에 이르러 Koenigsegg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협상에서 물러나 사브의 운명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그 일주일 뒤인 2009년 12월 1일 네덜란드의 스포츠카 생산업체인 Spyker가 GM과 소유주 이전 협상을 개시하지만 GM은 Spyker의 출자자 중 러시아마피아가 끼어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한다. 2010년 1월 12일에 들어 사브는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가지만 이와 동시에 GM과 Spyker의 소유주 이전 협상은 계속 진행되었다. 결국 1월 22일에 들어 Spyker의 대표이사 빅터 물러(Victor Muller)는 GM과 최종 판매 협상에 성공해 사브는 Spyker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네덜란드 스포츠카 생산업체 Spyker의 사브 매입에 대해서 일년 이상 진행된 사브 구조조정을

12) Svenska Dagbladet, 2010-02-05, ”Facken ”gör inte vågen” för Geely”

경험한 사브 직원들은 물론 기타 부품 생산업체가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sup>13)</sup> 스웨덴의 승용차 양사 모두 소유주가 바뀌기는 했지만 공장폐쇄를 피하고 또한 수천, 수만 명의 실업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높은 실업을 겪고 있는 스웨덴 노동시장에 주는 희소식임이 틀림없다.

## ■ 맺음말

스웨덴의 경기종합지수는 2009년 10월 이후 계속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가 심각한 불경기를 벗어나 다시 호경기로 접어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과 가구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노동시장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도 서서히 증가할 것이며 또한 소득이 증가된다면 이는 위기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생산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요약하면 앞으로 당분간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스웨덴의 경기회복이 느릴 것은 스웨덴 가구들이 스웨덴의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태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9년 12월에 스웨덴 민간 설문조사 단체인 스콕(SKOP)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웨덴 가구의 약 5분의 2, 즉 42%는 2010년 동안 스웨덴의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2009년 11월에 비해 약 7.7%가 낮아진 수치이다. 이와 반대로 스웨덴의 경제가 후퇴할 것이라고 보는 수치는 23.6%인데 이는 전월에 비해 약 5.3%가 올라간 수치이다. 본인 개인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치는 17.3%이며 본인 개인의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수치는 15.7%이다. 스웨덴 국민 전체의 경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볼 때 2010년 스웨덴의 경기 회복은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앞으로 스웨덴의 경기회복과 노동시장의 개선은 또한 집권 중도보수당이 금년 9월 총선에

13) Svenska Dagbladet, 2009-01-26, "Saabs turbulena år"

---

대비해 어떠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것보다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09년 말  
까지 계속 스웨덴의 경기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해 오다 2010년 2월 들어 긍정적인  
견해로 돌아선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KLI**